

확 젊어진 특선급, 하반기 판도 흔들다

20기 이후 선수가 과반 넘는 60명 23기 13명, 기수 통틀어 가장 많아 수도권에서만 39명으로 강세 여전

하반기 등급조정에서 특선급 91명이 20~30대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1984년 이후 태어난 20~30대 선수 중 특선급에 진출한 수가 80명이나 된다. 가장 어린 선수는 생애 첫 특선급에 진출한 26기 이태운으로 특선급 최고령인 박일호와 나이 차가 23년에 이른다. 세대 별로 보면 20대가 17명이고 30대가 63명이다. 이중 작년까지 황금세대로 불리던 87년생들이 가장 많은 15명이다. 차세대 주자인 공태민(김포팀)을 보유한 89년생들이 1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기수별로 보면 20기 이후 선수가 과반이 넘는 60명이다. 가장 많은 특선급을 보유한 기수는 23기로 13명이나 된다. 그 중심에 전원규, 김관희가 있다. 전원규는 올해 데뷔 후 첫 대상 타이틀을 거머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에는 진입에 실패했지만 하반기에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면 슈퍼특선급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기에 이어 현역 최강자 임채빈이 속한 25기가 12명의 특선급을 배출했다. 신인 티를 벗기 시작한 올해부터 27기의



광명스피돔에서 특선급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하반기 등급조정에서 특선급에 이름을 올린 91명의 선수 중에 20대~30대가 대거 약진해 하반기 판도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 선수들이 자력형이어서 앞으로 최강 기수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슈퍼특선급 2명(정해민, 양승원)을 보유한 22기도 12명으로 25기와 같은 수를 보유했다. 김희준, 김민준이 뒤를 받치고 있어 탄탄한 전력을 갖춘 기수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수도권 강세 여전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강세가 여전하다. 현재 수도권 특선급 선수들은 39명이다. 그 다음으로 한때 수도권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충청권이 21명이고, 이어 경상권 순이다. 수도권을 탐벌로 나누어 보면 정종진이 있는 김포팀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정해민과 신은섭, 정하늘이 이끄는 동서울팀이 10명이다. 훈련지로서만 본다면 세종팀도 무시할 수 없다. 14명이 포진했는데, 황인혁이란 강자가 있어 최근 독자노선을 펼쳐도 전혀 수도권에게 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수성팀은 상대적으로 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면면을 따져보면 언제든 최강 훈련지로 발돋움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최다 연습행

진 중인 임채빈을 비롯해 류재열, 김민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간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안창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명품경륜본부의 김순규 수석기자는 “현재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선수들이 싱싱한 다리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하며 노련한 선배들을 상대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며 “젊은 선수들은 훈련을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철저히 보완해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500원→400만원’ 광명스피돔서 1만8배 잭팟

9일 광명스피돔에서 벌어진 토요일 1경주에서 삼성승식 1만8,2배의 초고배당이 나왔다. 1만8,2배의 배당은 광명경륜 사상 4번째 기록이다. 역대 경륜 최고배당은 2018년 광명 15경주에서 나온 1만4813,6배다. 이번 초대박 배당은 전문가들이 하위권으로 분류한 선수들이 나란히 1, 2위로 끝난데서 비롯됐다. 이번은 임병창(3기 51세), 서우승(1기 51세) 등 두 명의 50대 선수들이 이끌었다. 경주 초반부터 대일 선두에 위치한 임병창은 마지막 결승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괴력을 보여줬고 서우승은 마지막 직선주요에서 추이에 성공했다. 이 레이스에서 삼성승식을 맞힌 사람은 모두 41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배당액은 500원 5등으로 이들은 400여만 원(세금공제 후)씩 환급을 받았다.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오른쪽)이 염윤선 광명시역도연맹회장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시역도연맹에 기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생활체육 역대 종목의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광명시역도연맹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배 전국생활체육역도대회’ 개최식과 함께 진행했다. 광명시역도연맹은 기부금(은누리상품권)으로 자전거 10대를 구입해 대회 입상 동호인들에게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의 공식협찬으로 9일부터 2일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 사업장 안전점검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이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홍복 총괄본부장은 광명스피돔 선수 숙소 등 시설환경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목표로 한 경주사업총괄본부의 ‘사업장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방역관리, 위급상황 시 작업자 긴급대피요령 인지,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선수 생활환경, 주변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편집 | 한민구 기자 stopsp@donga.com

전반기 마친 경정...김종민 가장 빛났다

개인 통산 500승 달성 ‘새 역사’ 조성인과 새 라이벌 구도 형성

27회차를 끝으로 경정 2022시즌 전반기가 끝났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시즌 진행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27회차까지 중단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올 시즌 상반기를 평가한다면 우선 주목할 점이 김종민의 대기록 달성이다.

역대 대상 경주 21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경정 최강자 김종민은 19회차 목요일 15경주에서 우승하며 개인 통산 500승 고지에 올랐다. 통산 500승은 김종민이 최초이다. 경정 2기로 데뷔한 후 꾸준한 자기

관리로 20여 년 간 슬럼프 없는 활약을 펼친 끝에 대기록을 세웠다. 김종민은 올 시즌 전반기에도 60%가 넘는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첫 600승 고지도 김종민이 먼저 오를 것이 유력하다.

그렇다고 전반기가 김종민의 독주 판도라고 할 수는 없다. 12기 조성인이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라이벌 체제가 형성됐다. 조성인은 지난 시즌 쿠리하라배와 그랑프리 경정을 김종민에게 내줬지만 올 시즌 첫 대상 경주인 스포츠월드배에서 당당하게 설욕했다. 특히 현재 상급부문에서 김종민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어 하반기 두 선수의 순위 다툼 경쟁이 불만하다.

올 시즌 전반기는 출발 위반이 역대급으



미사리경정장의 레이스 모습. 27회차로 끝난 2022 시즌 전반기에서는 2기 김종민이 첫 500승 고지에 등극하면서 경정 대세임을 입증했고, 규정 변경으로 인해 플라잉 위반이 역대급으로 늘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 많았다. 27회차까지 총 52회의 플라잉 위반이 나왔는데 이전 어느 시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기록이다. 현재 경정 등록선수가 152명인데 선수당 1회씩으로 계산해도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전반기에 플라잉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박석문, 윤영일, 문안나, 김세원, 최진혁, 김성

찬의 경우는 전반기만 2번의 플라잉 위반을 해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출전 횟수가 부족했던 선수들이 상급 수득을 위해 적극적인 승부를 펼친 점, 플라잉 위반 후 2년 내 다시 위반하면 주선보류가 되면 벌칙이 사라지면서 선수들이 부담 없이 공격적인 스타트 승부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전반기에는 그동안 경험과 기량 부족으로 주목을 못 받던 신인급 15, 16기 선수들이 서서히 비중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16기 나중호, 홍진수에 이어 15기 유망주인 김경일도 이제 자신감을 찾고 있다. 정세혁, 정승호도 복병급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전반기 막판인 26회차에서 3연속 입상한 한준희의 깜짝 활약도 인상 깊다. 꾸준하게 점수를 쌓고 있는 김지영은 여성 선수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범 기자

“국가대표 선수들 사기 진작” 대한체육회 체육대회 성료

대한체육회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연기 등으로 저하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1일 오후 2시 인천 국가대표선수촌 오룡관에서 ‘국가대표 Re:Fresh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국가대표 Re:Fresh 체육대회는 국가대표 사기진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국가대표 기량선발전이 이어 개최된 행사이다. 진천선수촌 입촌 종목 외에도 총외 훈련, 비소집 종목을 포함한 30종목 7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참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이 선수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참가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유인택 선수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교류하고 단결하여 더욱 즐거운 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 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102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체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과 인사차 한 국여성스포츠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수생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 내년 항저우아시안 게임 등에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국가대표 기량선발전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 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스포츠 종합

제시오, 골프용품 브랜드 첫 팝업스토어 오픈

14일엔 ‘골프여제’ 박인비 사인회

던롭스포츠코리아의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제시오가 12일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더스테이지에 골프용품 브랜드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24일까지 2주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스테이지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제시오는 이를 기념해 브랜드 엠버서더를 맡은 배우 이성경, 골프여제 박인비 등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시오는 MZ 세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화이트, 블루, 그린, 보르도, 골드 등 다섯 가지 컬러로 구성된 각기 다른 공간에 전시된 골프클럽과 골프용품을 통해 ‘쉽고 편하게 즐기는 골프’ 세대와 성별,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무는 제시오의 프 프 세계관을 경험하고, 골프클럽과 골프용품

등 제시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12일에는 이성경이 참석한 가운데 제시오 엑스와 제시오 레이디스의 새로운 컬러 라인업인 스페셜 화이트 에디션 모델의 신제품 언베일링 행사가 펼쳐졌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리시하고 독보적 프리미엄 가치를 선보인 스페셜 화이트 에디션 모델은 한정판 제품으로 현장을 찾은 많은 골프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3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신세계백화점 라이브커머스 ‘신백라이브’에서는 제시오 팝업스토어의 현장 분위기를 영상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14일에는 ‘골프여제’ 박인비의 사인회가 열린다. 또 던롭스포츠코리아 클럽 닥터와의 1대1 상담을 통한 ‘나만의 제시오 클럽 찾기’, 제시오 골프공 캘리그래피 이벤트, 제시오 제품 전시 및 체험존,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